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출판인 연대 성명서

2023년 11월 3일

이예원 옮김

정의와 표현의 자유, 글의 힘을 옹호하는 출판사와 세계 전역의 출판인 여러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출판인 연대와 뜻을 모아 이 성명서에 이름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출판인 연대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용기를, 창의력을, 저항을, 역사적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깊은 사랑을 존경합니다. 이스라엘의 잔혹한 집단 학살적 폭력을 마주하고도 말살되거나 침묵당하기를 거부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존경합니다. 서방 미디어 및 문화 산업의 등골 서늘해지는 연루에 맞서 소셜 네트워크와 거리에 모여 글을 쓰고, 발언하고, 노래 부르고, 허위 주장에 맞서며 세계 각지에서 공동체와 연대를 구축하는 수많은 몸과 목소리의 파도가 일으킨 희망의 불씨를 확인합니다.

지난 6주간 우리는 이스라엘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지지를 받아 가자를 쉴 새 없이 폭격하고, 사용 금지된 백린탄과 이례적인 신무기들을 동원해 가자 주민을 집단 처벌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11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가자 북부의 집을 뒤로하고 남부로 피난했지만, 막상 남부에 이르러서는 병원 건물 외에도 학교, 난민 캠프, 교회, 모스크 등에 마련된 임시 피난처가 무자비하게 파괴되는 일을 겪고 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 공격을 펼치는 지금, 우리는 어린이가 절반인 가자 주민 230만 명에게 피난처와 식량, 물, 연료, 전기 등 삶에 필요한 필수품조차 허락되지 않는 잔혹한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1948년 나크바 때 가자로 피난해 삶을 꾸려 온 가족들이 몇 대에 걸쳐 일시에 몰살된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팔레스타인 현지 시각 11월 13일 오후 7:30 기준) 11,423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살해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견디기 어려운 침통함과 상심 속에 이스라엘이 4,630여 명이 넘는 어린이를 무참히 살해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홀로코스트와 집단 학살(제노사이드) 학자이자 유대인인 라즈 시겔이 [썼듯이](#),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적 습격은 지극히 적나라하고 노골적이며 뻔뻔합니다.”

이스라엘과 서방 세력은 반대 목소리를 진압하고 흔들리는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의기투합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이래 출판 및 미디어 분야에서 가혹하고 광범위한 수준의 징계와 보복 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 명의 언론인이 가자에서 살해된 것을 규탄합니다. 지금껏(11월 3일 기준) 살해된 기자는 모하메드 파예즈 아부마타르, 사이드 타월, 모함메드 소브흐, 히삼 알뇌지하, 모함마드 살히, 모함마드 자르군, 아흐메드 세하브, 후삼 무바라크, 모함마드 발루샤, 이삼 브하르, 살람 메마, 아사드 샤물라흐, 이브라힘 모함마드 라피, 할릴 아부아스라, 사미흐 나디, 압둘하디 하비브, 유세프 마헤르 다와스, [로슈디 사라지](#)를 포함합니다.

말과 언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문화계 종사자로서, 우리는 이번 집단 학살의 개시가 이스라엘 점령군 수뇌부가 “인간 짐승” 유의 말을 남발하며 가자 민간인에 대한 저희의 공습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와 동시에 일어났음에 주목합니다. 집단 학살의 맥락에서 저희의 인간성을 삭제하고 짓밟는 언어 행위의 대상이 된 바 있는 민족이 다른 이들에게 똑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에 우리는 경악합니다. 또한 106년 전인 1917년 11월 2일, 식민주의 영국의 ‘벨푸어 선언’이 실행한 바 있는 시온주의(와 기독교) 신화의 기초 — “땅 없는 민족에게 민족 없는 땅을” — 에 내장된 말살과 집단 학살의 언어를 기억합니다.

말살과 추출, 그리고 통제를 일삼는 백인 우월주의, 식민주의, 자본주의 체제들의 여러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투영되고 있습니다. 예술과 문화의 고상한 세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작가 아다니아 시블리를 수상자로 초대했던 프랑크푸르트 도서전/리트프롬의 시상 거부(이에 [항의하는 서한](#)에 1,000명이 넘는 인지도 있는 작가들이 연서했습니다)부터 [뉴욕 92Y](#)의 비엠타인 응우옌 작가 낭독회 취소, 버몬트 대학교의 모함메드 (엘)쿠르드 시인 낭독회 취소, 미술 잡지 <아트포럼>의 데이비드 벨라스코 편집자 [해고](#)까지, 서방의 문학 및 출판 기관들은 팔레스타인에 관해 발언하는 작가들을 목살하고 처벌하며 저희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치경제적 이해 관계에 얼마나 깊이 연루돼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업 출판과 독립 출판 산업 관계자 가운데 침묵과 비겁함으로 이러한 탄압을 가능케 하고 묵인하는 모두를, 또한 이스라엘 점령 세력과 제국주의 기부자와 후원 단체 및 정부들의 요구에 협조함으로써 탄압에 가담하는 모두를 연루자로 규탄합니다. 우리는 작가에 대한 감시와 검열을, 서점 주인과 직원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행위를,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표하는 출판인을 협박하는 행위를 규탄합니다. 우리에게 출

판은 자유의 행사이자 문화적 표현이고 저항입니다. 출판인으로서 우리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위한 지면을 마련하고, 제국주의, 시온주의, 정착 식민주의에 대해 연대하는 모든 이의 목소리에 자리를 내주려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촉구하는 글과 작품을 비난과 혐의로부터 자유로이 발행하고 편집하고 유통하고 나누고 논의할 우리의 권리를 변호합니다. 이것이 이 저항에서 우리가 맡을 역할임을 압니다.

팔레스타인 작가와 저자 들을 침묵시키는 행위는 팔레스타인의 문학적 저항에 대한 두려움을 강화시킬 따름이며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집단 학살과 땅 몰수에 기여합니다. 폭격과 파괴와 유괴 및 팔레스타인 수감인을 고문하는 행위 뒤에 도사리는 것도 이 두려움이고, 팔레스타인의 기록물을 이스라엘 통제 아래 두는 것도 이 두려움입니다. 팔레스타인 작가 가산 카나파니의 말처럼, “팔레스타인이라는 대의는 팔레스타인인들만을 위한 대의가 아니라 모든 혁명가의 대의”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자유롭기 전에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지금 이 팔레스타인인들과 나란히 서서 반식민주의 저항의 새로운 시대를 열 때입니다. 오슬로에서 양보한 것들을, 또 시온주의 국가와의 연계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풍조를 거부하는 시대를 열 때입니다. 지금이 정착 식민주의 체제에 대해 승리한 다른 역사적 저항들, 예컨대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을 몰아낸 알제리아의 저항을 기억하고 따를 때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이스라엘 후원자들로부터 팔레스타인이 해방되기를 요구하는 우리의 지지를 강화할 때입니다. 지금이 협박과 탄압, 두려움과 폭력을 함께 거부하며 우리간의 연대를 쌓아 나갈 때입니다.

세계 각지의 출판 산업들에 발 딛고 있는 우리의 동지, 친구, 동료 여러분이 이 성명서에 연명하고 우리의 다음 요청을 지지해 주길 바랍니다.

- 집단 학살을 멈추고 가자와 서안 지구, 역사적 팔레스타인과 디아스포라에 걸친 팔레스타인인들을 향한 모든 폭력 행위를 종식하라.
- 이스라엘과 그 동맹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라.
- 자유와 저항, 귀환에 대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요구에 동참하라.
-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 철폐를 위한 보이콧, 투자 철회, 제재([BDS](#); [한국 BDS](#)) 운동에 응하라.
- 향후 세계 각지에서 열릴 국제 도서전과 문학 행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주빈으로 초대해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라.

- 출판계를 진정한 배움의 자리이자 자유로운 표현과 발언의 자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라. 출판인으로서 우리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목소리를 위한 자리, 전쟁 기계에 맞서 연대하는 모두를 위한 지면과 자리를 마련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출판인 연대의 공동 성명서에 서명하실 분은 [이양식](#)을 작성하세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려 연대를 표한 출판사와 출판인의 한국어 명단은 이 성명서가 먼저 게재된 [리시울/플레이타임 블로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ⁱ 누적 사망자 수는 『알자지라』 (<https://www.aljazeera.com>)의 집계를 참고했습니다(11 월 16 일 오전 11 시).